

산업기술 정보 · 문화 콘텐츠 공유의 장



▲ PDA커뮤니티 '클리앙' 모임에 등장한 각종 PDA들
▼ 엔편의 노트북 소모임을 탐방한 취재진

엔편? Engineering is Fun! _ '산업기술 문화·지식 발전소'를 표방하는 엔편은 기술전문 포털 사이트이다. 즉, 엔편(www.enfun.net)에서는 첨단 기술제품 및 관련기술에 대한 지식과 정보, 새로운 아이디어가 공유되고 생산된다. 생활 도처에서 정보는 흘러나고 넘쳐난다. 그러나 엔편에서는 산업기술 전반을 아우르는 가치 있는 정보만을 제대로 골라 나누고자 한다.

Engineering is Fun! 기술전문 사이트라고 해서 왠지 딱딱하고 재미없을 거라 생각했다면 단연 NO! 엔편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는 마니아가 아닌 일반인들이라도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을 만큼 흥미로우며 또 실질적인 정보들로 구성되어 친숙하다. 엔편을 후원하는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은 지난 9월 13일 엔편 출범에 대한 축하메시지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제품의 기술페인이 되어 엔편에서 기술과 함께 재미있는 놀이문화를 만들어보자"고 이야기한 바 있다.

마니아 커뮤니티의 소통구 _ 엔편은 첨단기술 제품에 관심이 많은 각 분야 마니아들의 손길을 잡는 커뮤니티 소통구가 될 것이다. 개성까지 한달 만에 벌써 '클리앙'(PDA), 'PC스피커 닷컴'(PC스피커·앰프), '미니비앙'(미니기기), '루믹스클럽'(디지털카메라) 등 4개의 마니아 커뮤니티가 엔편으로 합류했다. 이미 10만여 명의 마니아들이 엔편에 새로운 동지를 튼 셈이다. 한 지붕 여러 가족, 엔편과 마니아 커뮤니티의 동거방식은 좀 특별하다. 커뮤니티는 각각의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으면서(각 커뮤니티의 도메인을 유지), 취사선택된 서로간의 우수 콘텐츠를 엔편 안에서 Sharing한다.

그러므로 엔편은 정보와 지식을 자유롭게 나누는 순수 커뮤니티의 든든한 후원자이다. 회원 3만명, 페이지뷰만 하루 50만건이 넘는 PDA관련 최고의 커뮤니티로 손꼽히는 '클리앙'의 운영자 이봉희씨는 상업성에 물들지 않는 커뮤니티의 건강성을 고심하던 끝에 엔편에 합류했다. 엔편 운영을 담당하는 산업기술인터넷 방송국 이진행 과장과 더불어 엔편을 이끌어갈 둘의 이유있는 합작이 이루어진 것이다.

엔편으로 모인 소비자 & 기업 & 정부 _ 엔편과 제휴를 맺은 각 커뮤니티의 마니아들은 일종의 프로슈머(prosumer)다. 관심분야 제품을 소비하는 데는 누구보다 적극적이면서도 그 소비하는 태도는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제품 리뷰' 등을 통해 비판적인 잣대를 들이댄다. 이런 적극적인 소비방식은 일반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주며, 기업들의 제품 개발 및 생산에도 값진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즉, 엔편은 소비자와 기업을 연결해 제품을 소비하고 재생산하는 장이다. 그리고 후에 이 엔편의 커뮤니티가 기업 컨설팅 그룹으로 발전하게 되면 기업과 국가의 산업기술 발전을 앞당기는 큰 디딤돌이 될 것이다. 산업자원부가 직접 나서서 엔편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 사람의 마니아가 보유한 지식과 정보가 각 커뮤니티별 우수한 콘텐츠가 되고, 기업발전에 필요한 아이디어가 되고, 결국에는 국가 기술경쟁력의 근간을 이루게 되리라는 것에 엔편의 존재이유가 있다.



▲ 엔편에 연재되고 있는 <만평>



사람도 많고 목소리도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유용한 단체로 커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싶어요. 그렇다면 커뮤니티-기업-관공서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서로가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나눠가야겠죠.

현재 마니아 커뮤니티의 주가 되는
사람들은 이공계 관련 전공자 혹은 지망생들이잖아.
취업도 어렵고 오피니언 리더로서 사회에서 그 입지가 점점
좁아진 이공계 사람들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
언편이 그들이 가진 아이디어를 마음껏 꿈꾸고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언편 이진행 과장 ▶

◀ 클리앙 운영자 이봉희씨

언편과 함께 나누려면? 일반 유저 | 무작정 www.enfun.net에 접속해 언편의 정보들을 구석구석 섭렵한다. 커뮤니티 | 상업적인 것에 물들지 않은 순수 커뮤니티로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지속적인 활동력을 갖춘 커뮤니티라면 OK! 물론 언편과 자세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업 | 제품 품질, 제품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는 언편(02-6009-3300)으로 문의한다.



언편에서 공유될 모든 것 _ 언편은 마니아들의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선 각 커뮤니티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대용량의 회선과 서버,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 기반 환경을 제공해줄 예정이다. 디지털카메라 출사대회와 MP3청음회 등 각 커뮤니티별로 특성있는 오프라인 행사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아직 정보기술(IT) 제품에 한정되어 있는 언편 커뮤니티를 점차 다양한 기술분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모형비행기·인공위성·바이오·디자인부터 영화·의류·식품까지 우리생활에 필요한 실용제품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커뮤니티를 언편에서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존 커뮤니티 외에도 신규 커뮤니티의 자발적인 육성, 블로그 등 일반유저들과의 정보 공유, 연구개발자와의 간담회, 제품기반 기업들의 제품 출시 및 개발에 대한 의견 제시 등 활발한 교류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그리하여 2007년까지 기술마니아 커뮤니티 100개, 회원수 1백만명을 보유한 대형 포털사이트로 성장한다는 방침이다.

www.enfun.net